

“올 전시 준비 박차...베니스서 5·18展 개최 노력”

庚子年 새해설계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3월 중 올해 비엔날레 참여 작가 최종 리스트 발표 ‘광주 정신’ 집결 신작 프로젝트 ‘GB커미션’ 구체화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미래 지향적 청사진 구축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광주의 민주정신을 새로운 문화적 가치로 승화하고, 지역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서 현대미술의 흐름을 선도하는 전시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선정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는 19일 새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는 2020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해다. 재단에선 올해 전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터. 지난해 10월 1차 참여 작가 리스트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는 3월 최종 참여 작가 리스트를 공개하게 된다. 특히 이번 비엔날레는 오는 9월4일부터 11월29일까지 기존 66일에서 21일 연장해 87일간 운영한다.

“지난해는 2020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해였습니다. 국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내외 평가를 거쳐 지난해 3월 예술감독을 선정했으며 5월에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2020광주비엔날레 해외 홍보 설명회를 성공리에 열었습니다. 하반기엔 예술감독과 참여 작가의 사전리서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프로그램 ‘GB토크’를 활성화해 행사 기간 외에도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Minds Rising, Spirits Tuning)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비엔날레에선 인간 지성의 전 영역을 살피는 예술적 접근법과 과학적 방법론을 탐구하는 전시를 선보인다. 주제전을 비롯, GB커미션, 파빌리온 프

로젝트, 전시연계 프로젝트, 교육·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8광주비엔날레에서 첫 선을 보여 호평을 받은바 있는 ‘GB커미션’과 ‘파빌리온 프로젝트’도 2020광주비엔날레에서 지속적으로 열기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정신’을 반영한 신작 프로젝트를 준비해 새로운 ‘GB커미션’을 준비하고 있으며, 폴란드 아담 미츠키에비치 인스티튜트(Adam Mickiewicz Institute, AMI)와 MOU를 체결하고 이어 대만, 호주, 프랑스 등 해외 우수기관과의 접촉을 통해 ‘파빌리온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올해, ‘5·18민주화운동 특별전’에 관심이 모인다.

“5·18과 ‘광주정신’은 광주비엔날레의 창설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에 올해 행사에선 ‘5·18광주민주화운동 특별전’을 역점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5·18 특별전’은 광주정신의 미학적,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형하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5·18 특별전을 세계 무대에 선보이겠다는 새로운 계획도 밝혔다.

“5·18 특별전을 지속해, 내년 2021년 이탈리아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이 전시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5·18의 세계화 추진의 틀을 마련하고, 5·18의 유산들이 초국가적인 맥락과 담론에서 탐색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 전시와 맞물려 추진 중인 ‘광주폴리V’ 사업과 광주비엔날레재단의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광주 진입 틀게이트에 ‘관문형 폴리’ 프로젝트를 꾸준히 가동해 지난해 작품설계 및 구조공사에 들어갔으며 오는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혁신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단기 발전방안’과 ‘광주비엔날레 포지셔닝 프로젝트’를 마련해 재단의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설계할 것입니다.” /정겨울 기자



문화전당역 지하도, 문화로 탈바꿈

ACC, 6번 출구 통로 공공디자인 적용 시터 조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지하철 문화전당역을 잇는 지하 연결통로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사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최근 지하철 문화전당 역사에서 ACC로 진입하는 6번 출구 연결통로에 공공디자인을 적용, 삭막한 통로를 색다른 즐거움이 가득 찬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ACC는 통로 벽과 천장 등에 나무와 각종 조화 등을 심고 LED조명을 설치했다. 통로에 들어서면 도심 속 자연에 있는 느낌이 들도록 공간을 꾸몄다.

ACC는 지하도를 새로 단장하기에 앞서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금남지하철도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디자인에 반영했다. 도시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2018년 체결, 콘텐츠 연계 고객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상생을 도모했다.

6번 출구 연결통로는 지하 특유의 삭막하고 어두운 분위기로 인해 시민이 잘 찾지 않는 공간으로 인식됐다. 지하

철을 이용하는 문화전당 방문객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공간이지만 향락한 공간으로 방치됐던 것도 사실이었다.

ACC가 펼친 문화예술 입히는 이런 지하도의 분위기를 바꿔 시민이 다양한 재미와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지하도를 변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ACC의 공공디자인은 문화전당 안 여러 공간에도 도입돼 방문객의 발길을 끌고 있다. 아시아문화광장에 특색 있는 패턴과 인사말을 활용해 아시아인인 문화전당 방문객에게 보낸 아시아 선물 상자를 설치하는가 하면, 어린이문화원 출입구 천정엔 오색반사필름을 걸어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이전식 ACC 전당장 직무대리는 “시민과 외국인이 많이 찾는 곳에 문화예술을 입혀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자 했다”며 “시민의 발길이 머물고 방문객이 늘어나면 지하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겨울 기자

‘호남 서에게 거목’ 학정 이돈흥 별세

호남 서에게의 본류를 이던 학정(鶴亭) 이돈흥 서예가가 지난 18일 별세했다. 향년 74세.

고인은 식도암 지병으로 광주 성요한병원에서 투병하다 이날 오전 1시45분께 영면했다.

답양에서 1947년 출생한 이 서예가는 만 20세때 아버지의 권유로 송곡(松谷) 안규동(安圭東) 선생을 찾아가 서예에 입문했다. 그는 원고 이광사, 추사 김정희, 송곡 안규동으로 이어지는 호남 서예계를 대표하는 21세기 한국 서예 10대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한국미술협회 고문, 광주미술협회 회장, 국제서예가협회 회장, 국제서예예술연합 한국본부 부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호남에서 학정연우서회와 학정서예연구회 등을 설립해 작품 활동과 후학양성을 이어왔다.



이 서예가의 작품은 국립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 광주 5·18 민주광장 민주의 종과 화염사, 송광사 대웅전, 대흥사, 불국사, 범어사 등 전국 사찰에 걸려있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후보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국민통합’이라고 적은 친필 휘호를 선물하기도 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조선대병원장례식장 제1분향소에 마련됐다. 발인은 20일이다. /연합뉴스

“광주연극계 정상화 위한 지원 절실”

원광연 광주연극협회장 2020년 현안 발표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연극의 해’다. 오랜 침체에 빠졌던 연극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광주연극협회가 광주연극 정상화를 위한 각종 현안을 피력했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원광연·사진)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연극의 정상화를 위한 각종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광주연극협회가 매년 여는 대한민국연극제 예선대회인 ‘광주연극제’ 예산은 전국 6대 광역시의 팔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은 매년 예산의 증액이 이뤄져 왔으나, 광주의 경우 20여년간 2천700만원

씩 지원받아 오다 2017년 3천5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광주시의 지원금은 5대 광역시 평균인 8천520만원의 41%에 불과한 수준으로, 부산 1억5천500만원, 인천 8천600만원 등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지난해까지 22회째 이어 온 ‘광주소극장연극축제’도 지원에 목말라 있다.

광주연극계는 2017년 1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다, 2018년에는 대폭 삭감된 660만원의 예산으로, 2019년에는 600만원으로 축제를 진행했다. 타 지역에선 많게는 2억원 가까이 소극장 축제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광주국제평화연극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



행사의 경우 올해부터 광주시의 모든 축제가 공모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방침이 바뀌어, 개최가 불투명하다. 광주국제평화연극제는 2005년부터 국내는 물론, 해외 팀을 초청해 국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외 공연팀 섭외에만 1년여가 소요됨에도,

다음달 광주시의 공모를 기다리고 있어 모든 일정이 멈춘 상태다. 최악의 경우 공모에서 낙선되면 국제적 망신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원광연 광주연극협회장은 “지역 연극계가 자생력을 갖추고 정상화해야만 일정 수준에 도달한 작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광주연극 발전을 위해 평생토록 버텨 온 연극인들의 고충과 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겨울 기자

지금 사면, 지금 배송! 프리미엄 배달대행 서비스 VROONG(부릉) 함께 일할 가족을 찾습니다.

가맹점·전업기사 모집 (오치동,삼각동,일곡동,매곡동,용봉지구)

- 고정비는 줄이고 배달매출은 상승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절세 효과
- 주소 입력이 필요 없는 편리한 부릉POS연동
- 배송 전 과정을 책임지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는 배송 라이더 브랜드
- 유연한 자동 배차 솔루션 보유
- 주변 상권 분석을 통한 상점 컨설팅 제공

대한민국 대표 인터넷 네이버가
최대주주로 투자한
우량 중소기업 VROONG

네이버
최대주주

부릉일곡지점 지사장 최영철

☎ 제후문의 1800-8255
☎ 문의 010-5807-0758

광주 대인동의 문화공원 김넛과

카페
식음료, 카페갤러리, 아트상품 전시 & 판매

아트호텔
전객실 회화전시 / 장기숙박할인(음식조리가능)

지하갤러리(55평), 2층(75평) 전시, 상설공연, 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음악콘서트(저녁 7시 30분)
최대 100여명 사용가능

김넛과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2-2번지
전화번호 : 062-229-3355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